

winter 2018 / spring 2019 — vol.8

동행

Special 행복을 믿어요



Contents

winter 2018 / spring 2019 — vol.8

윈슬로 호머(Winslow Homer), 스냅 더 윙 Snap the Whip, 1872
캔버스에 유화, 30.5 x 50.8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손발이 맞지 않는 아이들처럼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

조급해하지 않기를.

심을 즐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Story

02

힐링에세이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10

힐링로드

당신의 새날들이
언제나 눈부시기를

18

힐링&무비

영화 '나를 기억해'로 돌아보는
: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심각하고 항구적인 정신적 고통

22

힐링라이프

따뜻한 그림 한 점의 위로

With U

26

#몰카 범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28

전문가 칼럼

몰카는 문화 구조적 폭력이다

30

피해자 수기

미주의 차가운 손

32

홍보영상 소개

아름다운 동행

34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Ⅰ

범죄피해자 가정 보안시스템 설치

36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Ⅱ

군산 방화사건 그날의 이야기
외상값이 부른 참사 군산 방화사건

에나 일러스_ full of flowers



44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Ⅲ

특화사업 엮보기

News

48

연합회 뉴스

센터 뉴스

범죄피해자 감사편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보

통권 8호(월간 비매물)

발행일 2018.12. 31.

발행인 김갑식

발행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디자인 화이트 02.512.3747

인쇄 서진문화인쇄사 02.2274.1439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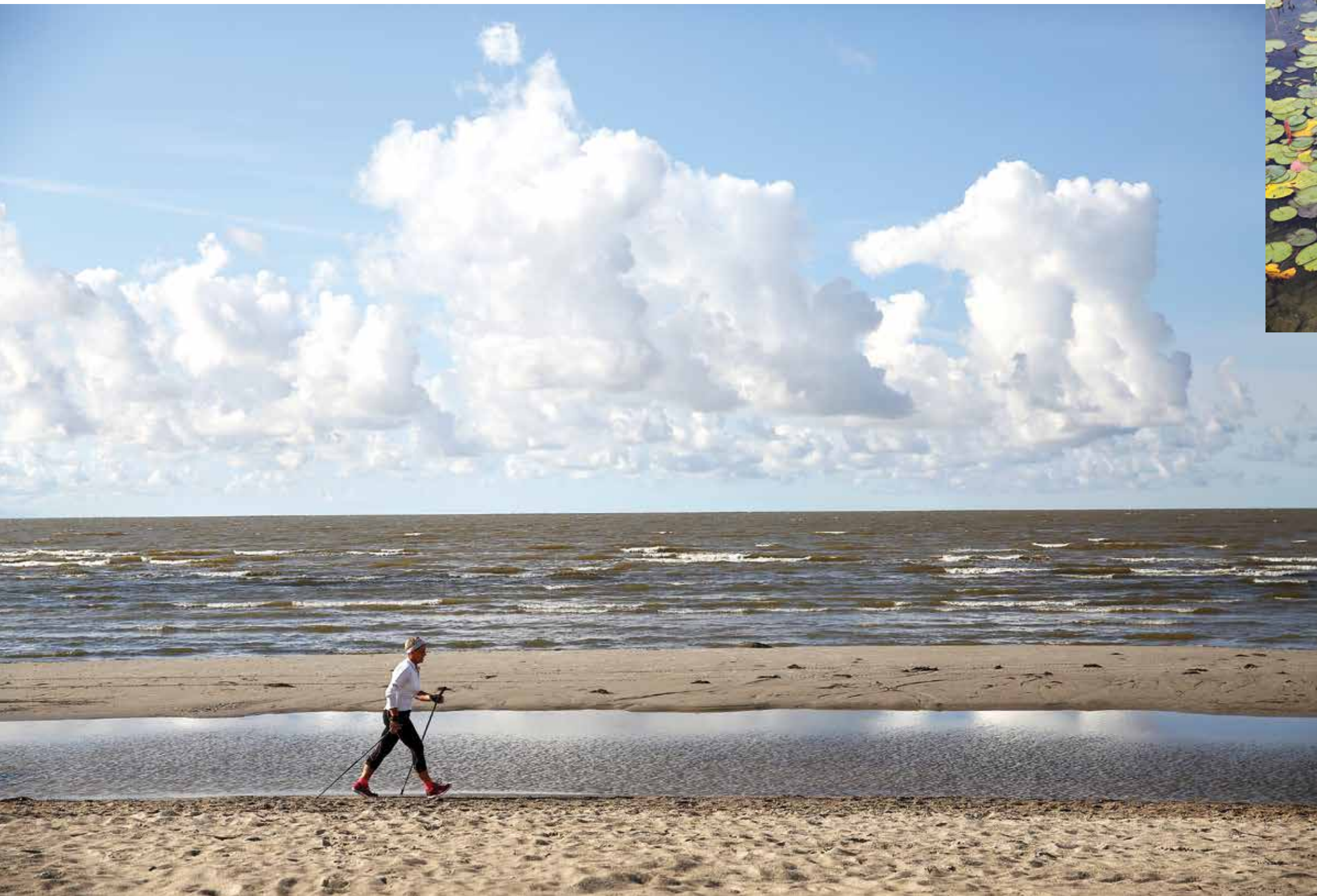
당신이 이제는 행복해졌으면 해요.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life

write 최다솜(자유기고가)
photograph 최다솜, shutterstock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지금 일어나 길을 떠나요.



향기 그윽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어제는 볼 수 없었던 오늘의 풍경들을 눈에 담아요.

무엇이든 해 보아요.





행복을 가까이 두고 싶다면 먼저
행복을 믿어요.

행복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평범해 보이는 당신의 짧은 하루에도
반짝이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세상은 당신이 보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자신이 왜소하다고 느껴지면
떠올려 봐요.

그래도 괜찮아.

잘 해낼 거야, 잘하고 있어.



내가 빛나지 않아도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어요.

STORY 힐링로드

2019 당신의 새날들이

언제나 눈부시기를...

새로운 다짐을 새기는 날. 시간이 멈춘듯 평온한 그곳에서 묵힌 마음을 벗어버렸다.

edit 최다솜(자유기고가) cooperate 한국관광공사

묵은 마음을 씻고 새 마음을 열다
평창 월정사



월정사는 천년의 시간이 조성한 전나무숲길로 유명하다. 매표소를 지나 몇 걸음 옮기지 않아 일주문이 나타나고, 그 뒤로 '천년의 숲'이 1km쯤 이어진다. 길 양쪽엔 80년 이상 수령을 지닌 아름드리 전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찼다. 자그마치 1800여 그루다. 숲길은 걷기 좋은 흙길로 2차선 도로 만큼이나 널찍하다. 나무 향기 바람 소리 그윽한 숲은 편 안하고 포근하다.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민다. 답답했던 가슴이 일순 간에 뽕 뚫리는 듯 상쾌하다.

숲길은 사계절 언제 찾아도 늘 한결같다. 해가 쨍하면 그늘이 깊어 좋고, 비가 내리면 운 치가 압권이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눈 내리는 겨울을 빼놓을 수 없다. 한겨울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숲은 봄꽃보다 아름다운 눈꽃이 하늘을 찌른다. 특히 눈 내린 직후라면 적막이 숲을 가득 채워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잠기기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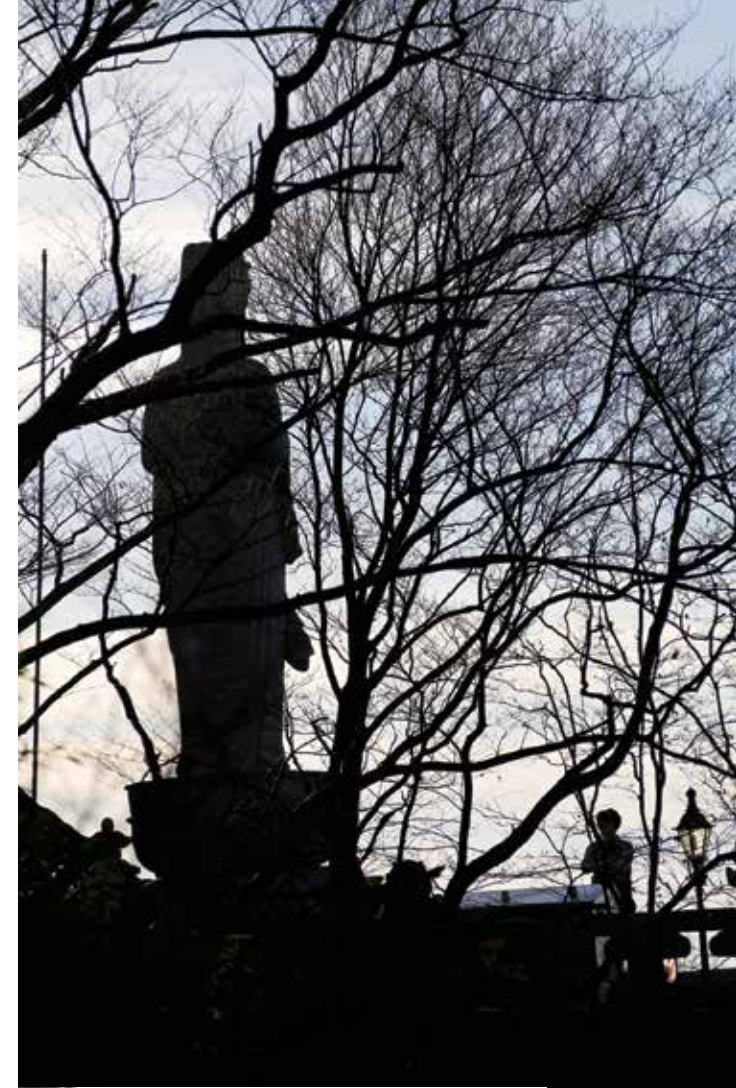




오대천을 끼고 숲을 따라 오르면 그 길 끝에 월정사가 있다. 월정사에 들기 전 숲길에서 ‘할아버지 나무’를 만난다. 2006년 벼락을 맞아 부러진 고목이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엔 행하니 바람구멍만 뚫렸다. 풍상을 겪으며 이만큼 버텨온 위엄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월정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우리나라 5대 사찰 중 하나다. 6.25전쟁 때 크게 피해를 입어 오랜 역사를 대변해주는 전각은 없지만, 대신 팔각구층석탑이 그 아쉬움을 잊게 해준다. 커췌이 아홉 개의 층을 이룬 석탑은 마치 연꽃에 둘러싸인 꽃술 같다. 탑 앞에는 돌을 깎아 만든 보살좌상이 공양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의 등 뒤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탑과 전각의 화려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찾아가는 길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문의 033-330-2772



잊었던 온기와 희망을 품다 남해 보리암

원효대사가 세웠다는 보리암은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힌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에 앞서 백일기도를 올린 곳으로도 알려졌다.

사실 보리암이 있는 금산은 그 자체로도 매우 잘생겼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품속에 자리한 유일한 산악 지역으로 남해가 품은 바다를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금산은 남해의 열두 가지 빼어난 풍경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해돋이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굳이 소원성취가 아니어도 이곳을 방문할 이유는 충분하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을 오르면 제2주차장에 이른다. 매표소 지나 오막을 따라 15분쯤 더 걸어 오르면 보리암이다. 제2주차장이 만차인 경우에는 제1주차장에서 유료 셔틀버스를 타고 제2주차장까지 오르면 편하다.

보리암은 오르고 또 올라온 노고만큼 멋진 풍경을 내어준다. 해가 뜨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아스라이 지운 해무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등성 등성 솟은 섬과 망망대해가 경쟁하듯 얼굴을 내밀고, 고요한 듯 강렬하게 차오르는 남해 바다의 힘이 마음을 뒤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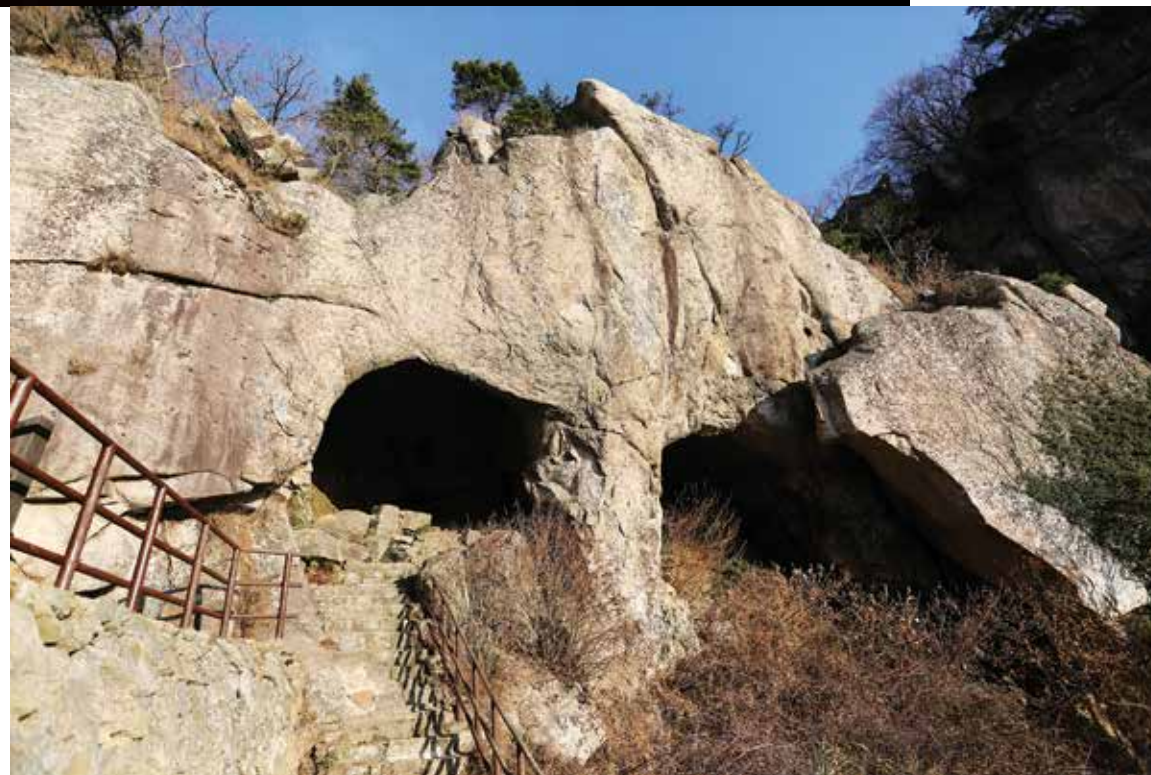
보리암과 남해의 일출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화엄봉이 적당하다. 보리암 뒤쪽 야트막한 산길을 따라 10분 정도 올랐을 뿐인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산 한가운데 자리한 사찰이 한눈에 들어온다. 적당히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온통 금빛으로 물드는 남해의 바다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아래 암자에서 메아리치는 나무아미타불 소리도 따뜻한 위안을 건넨다.

보리암으로 내려가는 길, 내친김에 쌍홍문까지 가보기로 한다. 보리암 아래로 10분쯤 걸어 도착한 쌍홍문은 금산의 관문이다. 말 그대로 무지개 모양의 문이 두 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얼핏 보면 거인의 콧구멍 같기도 하고, 해골의 눈 같기도 하다. 굴은 속이 비어 있고 천장 구멍이 뚫려 있어 하늘이 잡힐 듯하다.

보리암으로 돌아와 해수관음상 앞에 선다. 한 사람당 하나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어 간절한 소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두 손을 모은 다음 눈을 감는다. 한 번 말하고 나면 절대 물릴 수 없다는 생각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늘 행복하자'고 운을 뗐다. 해수관음상은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찾아가는 길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문의 055-862-6115



HEALING with MOVIES



‘영화로 보는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상처들을 마주하고, 치유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write 방미나(나우심리상담센터 대표)



나를 기억해
2018년 개봉
120분, 청소년 관람 불가
감독: 이한욱
출연: 이유영, 김희원 외

영화 ‘나를 기억해’로 돌아보는 :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심각하고 항구적인 정신적 고통

지난 5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기업 힐튼이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1억 달러의 소송에 휘말렸다. 3년 전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힐튼 계열의 ‘햄프턴 인 앤드 스위트’ 호텔에 묵은 바 있던 한 여성이 샤워 도중 몰래카메라에 찍혔고 영상이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돼 심각한 피해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 여성은 올 9월부터 ‘이 사람 당신 맞지?’라고 묻는 이메일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입막음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여성은 총 19장에 이르는 소장에서 ‘심각하고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호텔 측에 치료비와 소득 상실 등 책임을 물었다. ‘심각하고 항구적인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심정을 압축한 이 문장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지 짐작하게 한다.

영화 ‘나를 기억해’는 청소년 범죄와 음란물 유포 문제를 다룬 영화다. 이 영화가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한서린은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학생에게 성폭행 장면을 촬영 당했다. 동영상 유포되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송출하면서 일명 ‘마리오네트’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다. 영화의 영어 제목이기도 한 ‘마리오네트(Marionette)’는 팔, 다리, 머리에 끈을 달아 위에서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을 지칭한다.

한서린은 고통스런 시간에서 살아남아 교사가 되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기억해?’ 그녀에게 날아온 문자 한 통, 그리고 14년 전 유포된 사진들. 그녀의 삶은 일시정지 상태로 얼어붙었고 과거의 참혹함 속으로 다시 던져진다. 자유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누군가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6년 6470건으로 폭증했다.



없다는 수치심과 무력감은 한서린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린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꿈,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 곳
곳하게 살아내기 위해 그동안 쏟아 부은 모든 고군분투를 한순간에 ‘쓸모없음’으로 만들어버린다. 누가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는 걸까.

몰래카메라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연령과 직업도 천차만별이다. 처벌을 감수하
면서까지 남몰래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를 기억해’의 가해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모범적인 반장, 학교 밖 청소년, 은둔하는 성인,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언론, 심지어 각종 인터넷
활용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쓴 초등학교생까지. 그들은 개인적 호기심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공유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고
통에는 한결같이 무감하다. 그들은 모두 현실감각이 무너진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듯 누군가를 유린한다. 타인의 고통을 밀천삼아 자신의 경제
적,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범죄며 그들은 공범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대부분 ‘관음증’에서 비롯되는 ‘성도착증’의 하나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 주로 여성의 신체나 타인
의 성행위를 몰래 관찰하는 행위는 실재적 범죄로 발전하기도 한다.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4%였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5년 24.9%
를 기록한 사실은 그 심각성을 증명한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회에서 ‘나를 기억해’의 한서린이나 힐튼호텔
의 여성 투숙객은 마리오네트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영화 속 한서린은 이사를 하고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삶을 시도하지만, 한 번 촬영된 영상과
사진은 부식하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출몰한다.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이제 일상화된 공포가 되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6년 6470건으
로 폭증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내는 신기종 상품들이 출시되고, 모 숙박업소나 공공건물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
했다는 인증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확산한다. 그러나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를 카메라를 언제까지 피하며 살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적 개선이나
법적 처벌을 강화해 안전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고통에 연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화 속 예비신랑은 자신의 애인
이 희생자라는 사실을 모르 채 ‘당하는 애들이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지. 인생 쫄 난거지’라고 표현한다. 아마도 한서린은 그와의 결혼이 가능하
지 않을 것 같다. 14년 전 언론에 사건을 흘렸던 형사는 영혼을 판 대가로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한서린을 돕는다.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 용기를 얻은 한서린은 자신을 묶어맨 마리오네트의 줄을 끊어낸다.
그렇게 한서린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현실의 어딘 가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마리오네트’가 ‘심각하고 항구적인 정신적
손상’을 끌어안은 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지지, 따뜻한 공감이다. 언제든, 누구든,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달한 마음의 문을 고요히 두드리는 따스한 그림 한 점

Art exhibition



cold on the outside

write 최다솔(자유기고가) cooperate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호반아트리움, K현대미술관



full of flowers
haenyeo



Eva Armisen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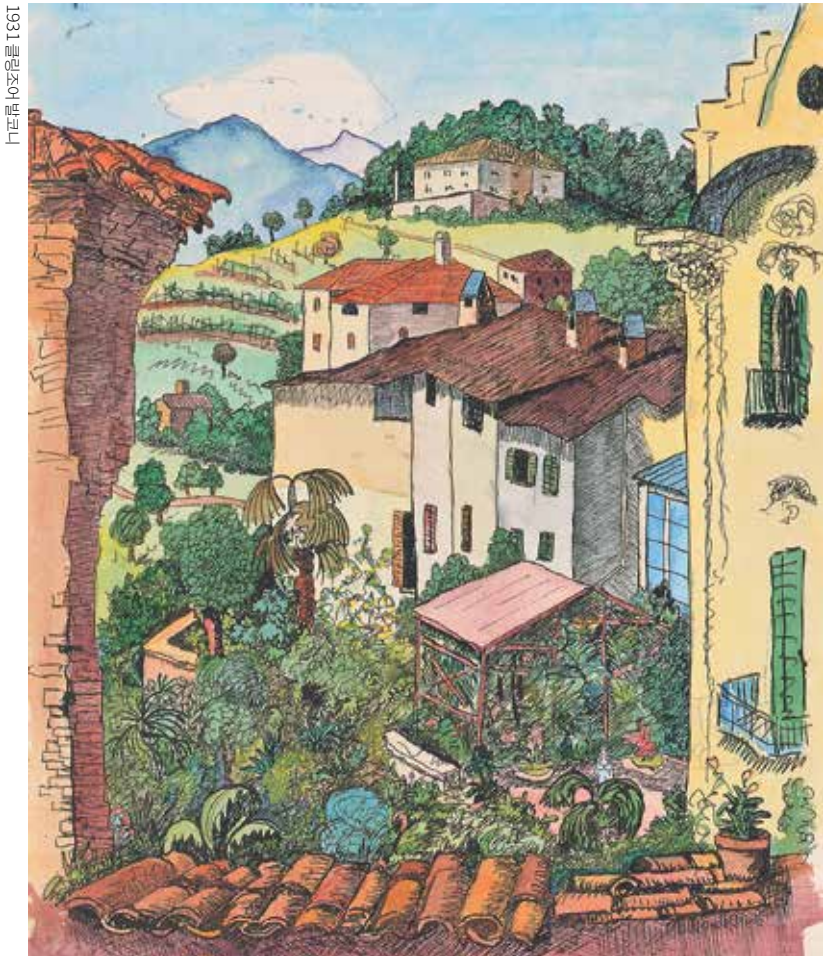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다. 그녀의 그림에는 늘 사랑스러운 여성, 다정한 가족이 등장한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열매안고 있다.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풍경이다. 이번 전시는 'HOME(집)'을 주제로 8개의 방으로 꾸며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을 선보인다. 마치 작가의 집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유화와 판화,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 작가의 초기작부터 서울의 풍경·음식·사람을 주제로 한 최근 작품까지 150여 점이 관객과 만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전시장 일곱 번째 방에 가면 그녀가 해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려낸 작품들을 원작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019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2-332-8011 홈페이지 www.evakorea.com



1933 눈 덮인 계곡



1931 클림트와 벨코니



Hermann Hesse
영혼에게 건네는 위로
헤르만 헤세 : 치유의 그림들



호반아트리움에서 열리는 '헤르만 헤세 : 치유의 그림들'은 작가뿐 아니라 화가로도 활동했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원작과 함께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볼 수 있는 작품은 우울증을 겪던 헤세가 심리치료를 위해 그렸던 그림들이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했던 경력 때문에 지성인들로부터 정치적 비난과 조직적 왕따를 당했고, 그로 인해 10년 넘는 세월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전시회는 헤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연대기별로 모아 구성했다. '헤세의 초대', '방황과 고통', '사랑과 우정', '치유와 회복', '헤세 뮤지엄', '헤세의 정원', '평화와 희망' 등 7개 주제로 11개 공간에 나눠 꾸려졌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재해석된 '치유의 그림들'을 비롯해 편지, 노벨문학상 기념주화 등 헤세가 남긴 다양한 삶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2019년 6월 9일까지.

문의 02-6337-7300 홈페이지 www.hobanartrium.com



Le Petit Prince

다시 꺼내보는 동심 나의 어린왕자에게

'나의 어린왕자에게'는 어린 시절 동화로 익숙한 '어린왕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다. 일러스트레이터, 미디어아티스트, 입체적 초상가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국내외 작가 20여 명이 원작에서 받은 영감을 미술로 재해석했다. 전시는 원작자 생텍쥐페리가 '어린왕자' 집필 당시 마음에 드는 삽화가를 찾지 못해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일화에서 출발한다. 작가들은 회화부터 영상, 설치,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당시 그려 낼지 못했던 삽화를 하나하나 채운다. 특히 미디어 아트가 중심이 되어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중국 미술작가 장위하오의 작품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가 대표적이다. 3개의 3D 입체 영상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코끼리, 모자, 뱀을 보여준다. 작품 외에 관람객이 직접 자신만의 양을 그려보고 조이스틱을 이용해 우주를 탐험하는 체험 공간도 있다.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등 어린왕자 속 명대사가 반짝이는 네온사인도 설치됐다. 전시는 2019년 1월 27일까지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 02-2138-0952~3 홈페이지 www.kmcaseoul.org



구름은 꿈꾸는 풍선 160 x 160 x 250cm Installation 2016



정위하오의 작품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Win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몰래카메라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치유할 수 없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나 그런 방식을 의미한다. 1991년 최초로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라는 코너로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인간의 수치심과 함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피해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중범죄다.

REC 00:00:05:47

75%

하지만 기술의 발전 등으로 몰래카메라 형태가 다양해지고 소형화 되면서 볼펜, 라이터, 단추모양, 안경, 시계 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화장실, 샤워실, 숙박업소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성폭력 피해와 비슷하게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나 이럴 경우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여 배포하는 피의자가 처벌받지 못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피의자가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실생활 공간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현장을 발견했다면

- ① 112 혹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즉시 신고
- ② 주변에 도움 요청,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 확보
- ③ 용의자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인상착의 특징 기록

실생활 공간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다면 해당 내용을 침착하게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발견된 카메라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손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목격자를 확보한다. 도망가는 피의자를 잡으려 할 경우 상해 피해로까지 상황이 번질 수 있으니 최대한 인상착의와 특징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몰래카메라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발견했다면

- ① 동영상, 사진 다운로드, 화면 캡처, URL 저장, 주소 저장 등 증거 확보
- ② 가까운 관할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누리집,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



몰카는 문화 구조적 폭력이다

폭력은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구조적 폭력으로 나뉜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자를 몰아매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write 권정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천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나 그런 카메라를 사용한 촬영 자체를 말한다. 몰래카메라는 MBC에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고 범죄적 행위로 변질되면서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는 노출과 음란의 이미지를 잔뜩 품게 되었고, 사생활과 개인의 신체 혹은 성행위 등을 비밀리에 촬영해 대중에 유포하는 등 유흥과 사행의 방편으로까지 진화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몰래카메라가 새로운 흥미를 자아내기 위해 선의의 위장이나 설정을 하는 것이라면, 몰카는 불법적인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간 존엄성의 파괴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몰카가 문제시되는 것은 촬영과 배포를 통해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뿐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여 장기간, 심지어는 일생동안 심적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몰카의 경우 개인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대중 사회에 유포되는 만큼 쉽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나 완전범죄를 기도한다는 점에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유포를 통한 인간성 파괴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점이다. 폭력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과 손해를 입히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문화적인 구조적 폭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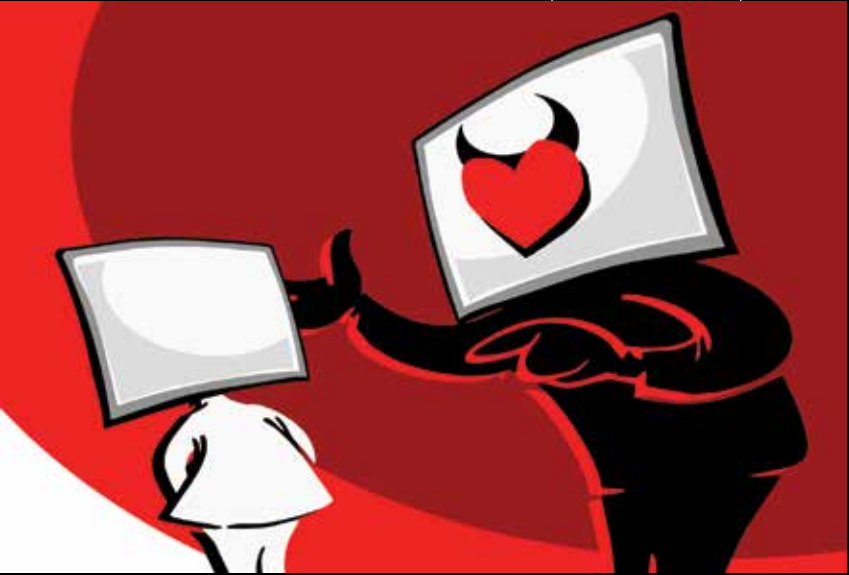
“몰카는 물리적 폭력은 아니지만 촬영물을 통해 피해자를 몰아매거나 나아가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간접적이고 문화적인 구조적 폭력이다”

몰카는 물리적 폭력은 아니지만 촬영물을 통해 피해자를 몰아매거나 나아가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구조적 폭력이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은 그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연관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몰래카메라와 같은 구조적 폭력의 예방과 대응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몰카 내용물이 피해자의 인권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사회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요즘 사회문제시 되는 수많은 갑질들이 모두 사회문화

적 역사를 가진 구조적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몰카의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문화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성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몰카는 커다란 유혹거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몰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법적, 사회적으로 도외시되고 처벌받는다라는 관념이 정착되어야 한다.

몰카 기기나 내용물의 유포나 판매와 같은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은 물론 반드시 몰카 범죄자는 밝혀지고 처벌받는다라는 법의식과 제도의 확립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기에 법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구조적 폭력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가 함께 확립될 때 몰카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WITH U 피해자 수기

희망수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미주의 차가운 손

write 문계영



“선생님! 빨리 화장실로 같이 가주세요!”

저녁 급식을 먹고 교무실에서 이 닻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무실 앞에서 다급히 소리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에 양치 컵을 되는데로 놓고 3층 화장실로 정신없이 뛰어갔다. 화장실 앞에는 아이들이 모여 웅성거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선생님, 저 안에서 웬 남자가 물카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을 먹다 급히 달려오신 정 선생님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맨 끝 화장실에 한 남학생이 숨어 있는 게 보였다.

정 선생님이 학생을 붙잡아 교무실로 데리고 왔다. 인근 학교 남학생이었다. 몰래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와 소지한 아이폰드로 여학생들을 찍은 것이다. 그 학생의 아이폰드 안에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 촬영한 여자의 치마 속과 화장실에서 찍은 여학생들의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남학생의 학교에도 연락을 했다.

우리 학교 여학생들은 혹시 자신의 모습이 찍힌 건 아닐까 매우 불안해하며 힘들어했다.

다음 날, 여경이 학교로 찾아왔고 물카에 찍힌 학생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사진을 보며 학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우리 반 미주로 보이는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토끼 모양의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있는 여학생이 아무래도 미주 같았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우리 반 핸드폰을 모아둔 가방을 살펴봤다. 예상대로 미주의 핸드폰에 토끼 모양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다. 이 상황을 미주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미주는 모르는 게 좋을까. 미주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걱정되어 한동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에 미주가 교무실로 찾아왔다.

미주는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그 화장실 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어떡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아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미주의 손을 잡고 남학생이 찍은 사진은 어떤 경로로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것이지, 범죄를 당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다독이며 ‘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맞잡은 미주의 손은 차디찼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미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됐다.

미주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남학생이나 남자선생님을 대할 때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상담선생님에게는 집에서 아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모든 남자와 어떤 관계로든 얹히기 싫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한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기도 남았다.

이후 미주는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해 대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미주가 마음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물카 범죄를 저지른 그 남학생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아무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범죄피해자가 되어 평소와 다른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지 못하고 아버와의 관계마저 거부하게 되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하려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한 일상을 빼앗거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평범한 생활로부터 단절 시킬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더 나아가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고 공유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권리는 더더욱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생을 망칠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면 좋겠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영상 아름다운 동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아름다운 동행이 담긴 홍보영상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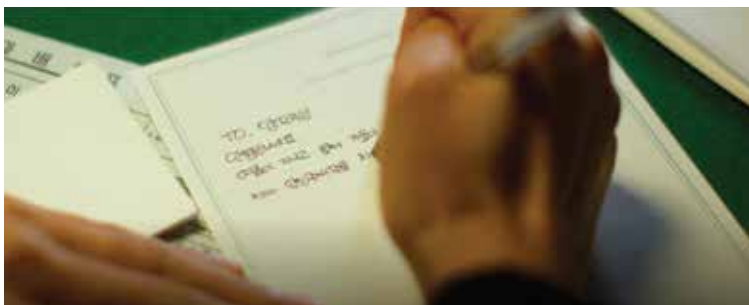
※영상 보러가기 - 유튜브(www.youtube.com) 에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또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박지민은 새로운 피해자로 접수된 양민주의 집을 찾아가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박지민은 그후로 3개월 동안이나 양민주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는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후 아들 윤시후와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양민주. 양민주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동급생의 지속적인 따돌림을 묵묵히 참고 견디던 아들 윤시후는 어느 날 집단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고, 그에 따른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중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양민주와 아들 윤시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박지민은 매일 집으로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지만, 3개월 간 열리지 않는 문.



박지민은 답답한 마음에 함께 근무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공감하고 아파하는 센터 사무처장의 모습을 보며 불현듯 무언가를 떠올린다.



박지민은 양민주와 유사한 피해자인 강윤희의 파일을 찾아본다. 2016년 딸의 묻지마 폭행으로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강윤희. 박지민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딸 최봄과 함께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강윤희를 찾아간다. 박지민은 강윤희에게 양민주의 사연을 들려주고, 피해자를 위해 함께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한다. 잠깐의 망설임 후, 결심을 하는 강윤희.



양민주의 집을 찾아간 두 사람. 강윤희는 양민주에게 같은 피해자, 같은 엄마로서 그간의 아픔을 어렵게 이야기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간절하게 설득한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양민주를 강윤희는 말없이 끌어안고 위로해 준다. 그렇게 아직 아물지 않은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서로를 위로한다.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는 박지민에게 양민주는 그동안 편지 잘 읽었다는 말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인다.



범죄피해자 가정 보안시스템 설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후원기업인 에스원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면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정감 있는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2018년 9월 보안시스템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



개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후원기업이며 안전과 안심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는 에스원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피해자를 위한 지속성 있고 반드시 필요한 지원 사업 추진에 공감
- 에스원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 주최하는 다링 공익캠페인의 기금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가정에 보안시스템 설치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
- 사업의 방향, 피해자 선정, 소속 센터와의 업무 협조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3차에 걸친 업무협의



추진 내용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며 여건을 충족하는 피해자 가정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2018년 8월 21일 에스원 사업팀 주관 하에 해당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선 보안시스템과 카메라영상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하는 제품 설명회 및 설치 관련 계획 안내
- 2018년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 40개 범죄피해자 가정에 보안시스템 설치 완료



기대효과

-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 출동으로 신속한 지원 제공
- 외부에서도 집안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위험에 대비 가능
- 오랜 시간 머무르며 생활하는 장소인 집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건 이후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모두 닫고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출 후 집안에 들어오는 날이면 문을 열고 한참을 살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 집 문밖을 열고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문밖의 작은 소리에도 숨죽여 있던 제가 이제는 바깥 상황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창문마다 설치해 주신 센서와 현관의 CCTV 덕분에 이제는 언제나 안심합니다. 고맙습니다.

”

- 보안시스템 지원 수혜 피해자 소감 중에서





피해자의 기억을 조각조각 맞춰 재구성한 군산 방화사건 그날의 이야기

write 박진우(방송작가)

2018년 6월 17일 군산시 장미동 주점 7080

진가영(64세)씨는 그날 계모임이 있었다.
원래는 매달 18일이 모임 날이지만 계원이 모두 괜찮다는 날을 정하기가 어려워 하루를 앞당기기로 했다.
그날 모인 계원은 7명.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옮긴 자리가 주점 7080이다. 주점 안은 손님이 많았다.
계원 중 몇 명인가가 그 동네에 살았다. 노래가 나오고 무대가 있고, 어느 동네에나 하나쯤 있을 법한, 특별할거 하나 없는 그런 가게였다. 술 잘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계모임인지라 다들 노래를 들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야하는 진가영씨는 모임의 총무가 돈 계산을 하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9시 30분경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열시도 안됐구만.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럴까? 진가영씨는 들고 일어난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KBS 공채 8기 개그맨 김태호(51세)씨는 다음 날 군산에서 열릴 연예인 자선골프대회에서 사회를 맡기로 돼 있었다. 그 사실을 안 친구들이 “함께 술이나 하자”고 청했다. 약속 장소는 장미동 주점 7080. 택시에서 내린 김태호씨 일행이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범인 이모씨가 움직였다. 그는 무려 3시간 30분 동안이나 그 가게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손님이 가득차기를... 술집 안에 손님이 충분히 찼다고 판단된 그때, 준비해온 휘발유를 입구에 부었다. 향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으로부터 훔쳐온 휘발유였다. 그는 출입구의 손잡이를 대걸레로 틀어막았다. 비닐로 공공목기까지 했다. 이제 누구도 그리로 나올 수 없게 됐다.

그런 후, 불을 붙였다. 그때가 밤 9시 53분.

가게 안에 들어가 있던 30명이 넘는 사람들 중 술집 주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일면식도 없는’ 그의 방화로, 가

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무대에서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진가영씨는 뭔가 ‘피시식’ ‘평’ 좌우간 대수롭잖은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눈앞에 불이 번쩍했다.

‘누군가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 걸까?’ 라는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불은 이미 불기둥이 되어 천장으로까지 치솟고 있었다. 정말 순식간이었다. “불이 무섭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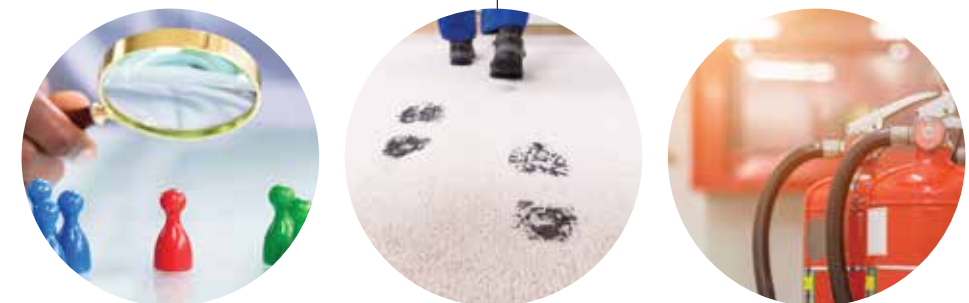
건물 안의 출입구는 모두 3개. 가게 입구는 완전 봉인된 채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옆에 신축 중인 카페와 연결된 쪽문은 손님들 대부분

“뒷문에 서 있던 진가영씨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불을 들이마시는 기분이었다.”

인근에 사는 김중곤씨와 김영상씨는 7080 주점의 맞은편 가게에서 맥주를 나누고 있었다. 앞 건물에서 불이 치솟는 걸 본 순간, 두 사람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약속이나 한 듯 달려갔지만 출입구는 이미 불기둥이었다. 그들은 뒷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세차장 건물과 맞닿아 있는 뒷문에는 페타이어와 고철들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전북일보 참고)

바로 인근에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봉사하던 청년들도 그 불길을 보고 달려왔다. 김중곤씨와 김영상씨는 뒷문을 열고 포개지듯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청년들도 도왔다. 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어느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가는 그 순간, 주방의 쪽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갔다. 혼자만... 잠시 후 갯돈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쪽문을 통해 들어가 갯돈을 챙겨나왔다고 한다. 그때도 혼자만..



그 시간, 불을 지르고 도망갔던 범인 이모씨는 가게에서 500m 떨어진 중동에 사는 선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휘발유를 뿌린 곳에 라이터를 대며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제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선배의 집으로 향해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했을까?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3분 후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20분 후 화재가 진압됐고,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됐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버스기사는 차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구했다. 김중곤씨와 김영상씨도,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달려온 청년들도... 그들 중 어느 한 명이 진가영씨에게 소리쳤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남편의 전화번호를 묻는데, 진가영씨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기도를 다쳤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진가영씨는 소리대신 손가락을 뻗어 누군가의 손바닥

에 남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나 좋았던 남편을 두고, 딸 셋을 두고, 병원으로 이송돼 갈비뼈가 나가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시각, 배에 타서 일하고 있던 최진철(59)씨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화를 받았다. 친구들과 모임을 간 아내 이화자(52)씨가 화재사건으로 다쳤다고 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전화가 들어왔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전화였다. 큰 불이 났다고 했다. 그는 그 길로 뱃머리를 돌렸다. 아내가 향해 간다는 전주 쪽으로 가야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무사히, 정말 무사히 사고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3명,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사망한 사람이 2명 더 늘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중한 상태였다. 이해영씨처럼 3도 이상의 화상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고, 진가영씨처럼 화상 정도

는 미미해도 유독가스로 인해 기도과 폐 손상을 입은 사람도 많았다. 화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33명의 사상자들은 모두 군산과 전주, 광주 멀리서 서울까

지 나뉘어 이송되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의사가 상처를 힐끗 들여다보고 “화상 치료는 몇 년이 걸리는 거야. 최소한 2년은 지켜봐야 돼” 하는 소리에 절망했다.

그날 계모임에 참석했던 또 한 명은 사고 이후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도 병원신세다. 간병인을 두고 싶어도 옆에 ‘남아나는’ 간병인이 없어 남편이 직장을 접은 채 아내 뒷바라지에 전념하고 있다.

전업주부였던 최옥분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어디서나 흔히 있는 계모임 자리였다. 오랜 세월, 친동기처럼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을 잃고 자신도 상처 입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 아직도 바깥 외출은 어렵고, 남편과 두 아들이 수고하는 게 순전히 자신의 잘못인거 같아 마음 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이는 가끔씩 혼자 중얼거린다. ‘죽고 싶다...’고.

그가 보고 있는걸, 이해영씨는 보지 못했다. 왜 물을 뿌려준다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이해영씨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남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누군가가 이해영씨에게 제 전화를 건네주었다. 전화를 받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제야 알았다. 화상을 입은 자신의 손에서 이미 살점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계원 중 가장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날 이해영씨와 같은 계원이었던 김인순(58)씨는 사이가 무척이

“그날 계모임에 참석했던 또 한 명은 사고 이후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한다.”



술집주인은 보험에 들었지만, 이번 사건은 술집주인의 실책이 아닌 방화사건이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한 푼도 지불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해영씨의 남편은 아내가 입원해 있는 한강성심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 두 달 동안 차안에서 새우잠을 잤다. 만삭의 딸은 중환자실 앞 환자 명단 전광판에 떠 있는 엄마 이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부디 그 전광판에서 엄마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깜빡이면 서도 어떻게든 남아있기를, 어떻게든 살아있어 주기를...

진가영씨는 중환자실에서 자신의 두 팔과 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는 걸 깨달았다. 화상환자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입에 물고 있던 마우스를 자신도 모르는 새에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묶어둔다고 한다. 기도가 타고 손상을 입어 숨을 못 쉬는 환자가 산소가 들어오는 마우스마저 빼버리면 그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고 후 나흘째 되던 날, 진가영씨의 남편과 아들, 딸은 병원으로부터 “오늘이 고비”라는 말을 들었다. 이해영씨는 서울로 이송된 후에도 2주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 밖에서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애를 태우며 간절히 기도했다.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뒤죽박죽됐다.

퇴원한 이후에도 진가영씨는 엘리베이터 같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절로 목이 움츠러들고 식은땀이 비 오듯 한다. 어쩌다 식당에라도 갈 때면 딸과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둔다. “꼬옥 비상구부터 봐줘야 해”

그리고는 가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한다. ‘언제쯤 다 나아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까’ 영영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은 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이 문득 자신을 해칠 것처럼 무서워지는 날, 그런 날이면 사고 이후에 자신들의 손을 잡아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생각한다.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심리치료를 받게 해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범행 후 선배 집에 숨어있던 범인 이모씨는 그날 경찰에 검거됐다. 10만원인 자신의 외상값을 술집주인이 20만원이라고 해서 불을 냈다고 털어놨다. 그 불로 개그맨 김태호씨의 두 딸은 아버지를 잃었다. 지방으로 행사를 뛰며 열심히 살던 그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다. 이해영씨는 사고 이후 여섯 달이나 지났지만 병원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고, 퇴원한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10월 23일. 검찰은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 이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월 29일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바로 그날 방화범 이모씨는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과합니다’ 그의 항소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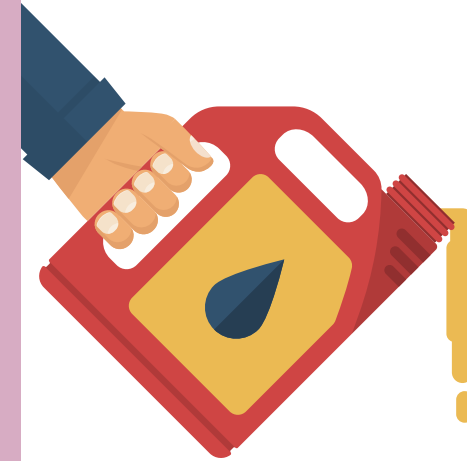
외상값이 부른 참사 군산 방화사건



2018년 6월 17일, 초여름의 일요일 밤.

군산시 장미동 7080 주점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주인과 가해자의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이 사건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빠져나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져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결국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업주를 포함 29명이 중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개요

- ▶ 폭력전과 6범인 가해자가 휘발유를 클럽 안쪽 입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출입문을 알루미늄 봉으로 봉쇄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형 방화사건으로 확대
- ▶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추후 병원 이송 피해자 중 2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현재까지 4명이 중환자로 입원 중이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화상피해의 특성상 재입원과 재수술을 반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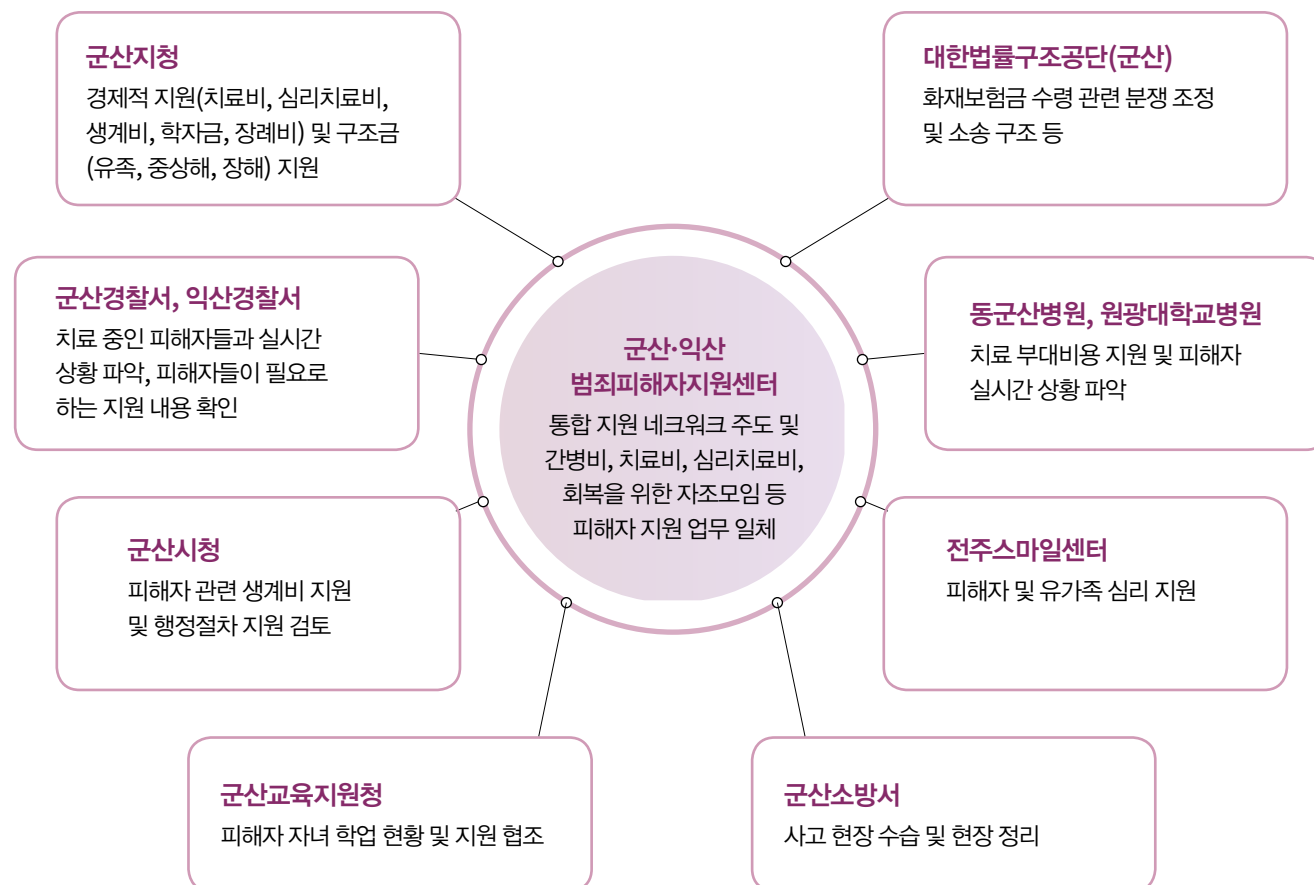
지원 내용

1— 일자별 주요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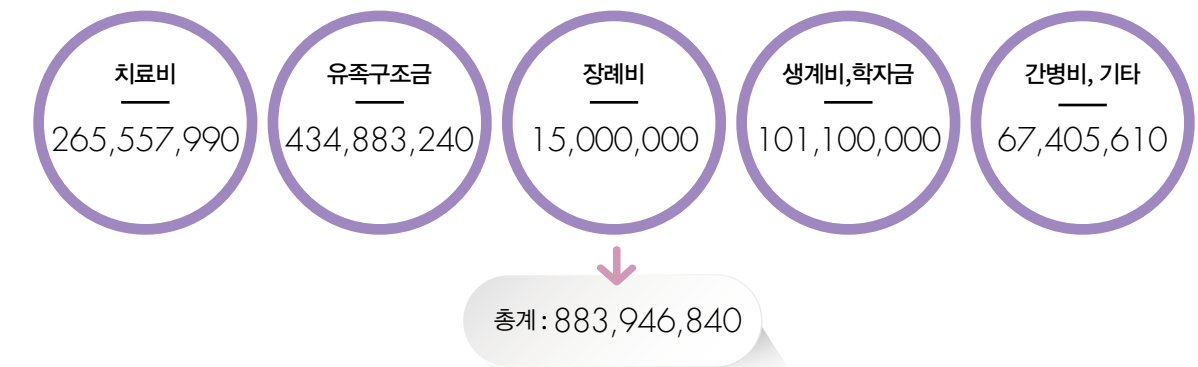


2— 기관별 주요 추진 사항



3— 경제적 지원 누계

(단위: 원)



국가기관 지원: 671,946,840 군산시,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 군산·익산센터 지원: 212,000,000

4— 시사점

- 유관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여 긴밀한 협력으로 피해자의 상황 파악 및 안내 실시
- 긴급 경제적 지원 결정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치료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적시에 최대한의 지원을 받도록 함
- 검찰청의 치료비, 장례비 뿐 아니라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에서 간병비, 교통비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지원
-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범죄피해지원센터 주도로 심리적 치료, 법률 및 일반 상담, 재판 모니터링 등 다방면에 걸쳐 섬세한 지원을 시행하였고 특히 일상생활의 복귀 및 충격회복을 위해 센터와 연계하여 힐링 캠프 등에 참여
- 대형 사건임에도 신속하고 섬세하며 종합적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2013년 범죄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덕분.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는 피해자 지원 추진



2018 단체표창 수상 센터 특화사업

특화사업 엿보기

매년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는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 면에서 우수하고 창의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선 센터에 대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곳을 소개한다.



경북북부센터 이야기가 있는 감성적 프로그램 개발

경북북부센터는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피해회복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에 힘을 쏟고 있다. '엄마 어렸을 적에 이야기 1, 2, 3' 책자를 통해 그리운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치유 프로그램과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재미있는 이미지 사진 찍기' 등 감성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돕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사랑의 집짓기와 MBC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리고, 지원 기업에 현판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학원 수강에 도움을 주고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간호조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았다.





청주센터 사회복지재단과의 연계 지원

청주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 없이 어렵게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 नेपाल 오지 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우민재단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매년 20여명의 피해자 가정 자녀에게 약 20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사업과 생필품 지원 사업,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이 저하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심리치유 프로그램(퀵트공예 바느질 테라피)을 매주 2~3시간씩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제천단양센터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통한 피해자 지원

제천단양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협력에 주력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에 지역사회가 나서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관내 전광판을 활용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리고, 제천 한방바이오헬스산업엑스포, 단양 소백산 철쭉제 등 지역의 주요 행사에서 캠페인을 전개해 센터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차 없는 거리 홍보, 야간 산행 홍보 등 특색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피해자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순창장수센터 '파랑새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

남원순창장수센터는 범죄피해자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특히 자선 골프대회 등 파랑새 가족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필품과 학자금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 명절에는 센터 위원들이 모여 사랑의 밑반찬 나눔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연중 5회 이상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활동 소식

KCVA news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성료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14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지원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이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우리는 당신과 함께 희망을 꿈꾼다'를 주제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토크콘서트에는 김천구미센터의 피해자가 직접 무대에 출연, 범죄피해 과정과 극복 사례를 담담하게 소개해 큰 울림을 전했다. 또 군산 화재사건에 얽힌 피해자의 가슴 아픈 사연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지원에 대해 들어보고, 경주 서라벌 힐링 캠프의 남다른 준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센터 홍보 영상 '아름다운 동행'이 첫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김천구미센터 피해자 자조모임이 준비한 합창 공연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제2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11월 16일 제2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3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법무부장관상(대상) 김기용(가명) 씨를 비롯해 모두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용씨는 범죄피해자 자녀를 둔 어머니로, 센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연을 담담하게 전달해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센터 사무처장 회의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2018년도 하반기 센터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센터별 특화사업 및 실적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센터의 발자취와 역사를 총망라하는 15년사 백서 발간, 종사자 전문 교육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범죄피해자 가정 보안시스템 설치 사업 추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 40가구에 신변보호용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침입이 발생하더라도 출동요원에게 체포되거나 범죄시도 중 경보음을 듣고 도주해 미수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또 외부에서도 집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보안업체 에스원과 연합회가 공동추진하고, 법무부 후원으로 개최하는 다링 안심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시행됐다. 다링 안심 캠페인은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건기 대회 행사로, 2014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8월 21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설명회에는 범죄피해자 가정에 보안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센터 종사자와 후원사인 에스원 사업담당자, 사회봉사단 직원 등이 참여했다.



피해자 작품 전시회 '어울림'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인천센터와 공동으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전국 피해자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피해자가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그림, 원예, 공예 작품 외에 센터위원, 자원봉사자, 검찰청 캘리그라피 동호회 작품이 함께 출품되어 뜻 깊고 풍성하게 준비됐다. 앞으로도 연합회와 전국 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소식

CENTER news



서울중앙센터

힐링캠프 및 동절기 김장지원 행사

서울중앙센터는 지난 11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한울 김치 공장에서 '아름다운 동행'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사랑과 희망 김장나눔 행사와 현장체험 및 멘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장지원 행사에는 서울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약 3000포기의 배추김치를 담갔고, 한울에서는 백김치 등을 추가로 후원했다. 현장체험은 충남 아산 신정호 주변을 산책하고 외암민속마을에서 한지 손거울을 만드는 등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뜻 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서울남부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교육 시행

서울남부센터는 지난 11월 5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설명을 시작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 등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센터

제9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서울동부센터는 지난 12월 5일 관할 지자체 간부진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범죄피해자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활동현황과 2019년 추진계획 보고 및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증액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동부센터는 현재 이사 26명, 위원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원활한 센터운영과 활동을 위해 2019년부터 이사 정원을 5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센터

2018년도 조직 강화 워크숍 개최

서울북부센터는 지난 11월 2일 최주봉 이사장과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세미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신규 위촉위원 상담역량 강화와 기존 위원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준비됐다. 센터는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확인하는 통합상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안전 욕구, 건강 욕구 등 일상에서 요구되는 10가지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서울서부센터

피해자와 함께하는 김장행사

서울서부센터는 지난 11월 21일 서울서부지검 구내식당에서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센터 위원 등 총 55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범죄피해자 22명이 직접 김장을 담고 박스로 포장하여 또 다른 범죄피해자 50여 가정에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센터

전문심리상담사 특강 개최

인천센터는 피해자 전문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20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는데 1월 1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특강은 뇌파치료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됐다. 뇌파치료는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행동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인지조절, 학습장애, 분노조절, 사회불안, 강박증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있다.



고양파주센터

2018년도 하반기 힐링 체험활동 실시

고양파주센터는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놀이공원에서 2018년 하반기 힐링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범죄피해자들은 각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중 4단계에 해당하는 힐링 체험활동의 경우 상, 하반기로 나눠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부천김포센터

가정방문상담 및 생활지원 사업

부천김포센터는 2005년부터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인을 파악했다. 외부 시선을 염려하여 방문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2014년부터 가정방문상담 및 생활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심리피해 회복 지원 및 가족 간 중재와 조정, 아동 및 노인 지원, 법정동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원센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수원센터는 지난 11월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와 지역 내 관계기관 및 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으며, 그 결과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원스톱 맞춤형 지원 활동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주이천양평센터
작은 클래식 힐링 음악회 개최

여주이천양평센터는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발리지에서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작은 클래식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범죄피해자 51명과 센터 이사장 및 운영위원 등 총 78명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음악회와 마술쇼를 관람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성남광주하남센터
상담위원 및 자원봉사위원 워크숍 개최

성남광주하남센터는 지난 10월 17일 상담위원 및 자원봉사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특강을 시작으로 만찬, 화담숲 산책 등 위원들이 향후 업무 효율화를 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평택안성센터
센터 창립 기념행사 및 자원봉사자 교육

평택안성센터는 지난 7월 11일 평택대학교 연회장에서 센터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센터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원봉사자 간 단합 및 화합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센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안양센터는 지난 11월 6일 안양 석수동 호암공원에서 '힐링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범죄피해자 자조모임인 '올타리' 회원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 약 800kg의 김장을 담가 피해자 20여 가정과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 15가정에 전달하였다. 참석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행사에 임했다.



속초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자립 지원

속초센터는 특수폭행 및 친부에 의한 성폭행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LH 주거 및 주거이전비,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며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피해자 가정의 정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강릉센터
제2차 강원도 합동 홍보 캠페인

강릉센터는 지난 6월 18일 강릉 단오제를 맞이하여 강릉시 남대천 일대에서 강원도 센터 합동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릉·춘천·원주·영월·속초 5개 센터 종사자 및 위원, 자원봉사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용 부채와 휴대용 물티슈를 전달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했다. 아울러 지역 내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월센터
2018년도 합동 힐링 캠프

영월센터는 지난 10월 6일과 7일 영월군 동강시스타에서 7개 센터(춘천·강릉·원주·속초·영월·춘주·제천)와 합동으로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존감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대인관계 개선 및 집단 상담, 심리 치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안산시흥광명센터
희망무지개 힐링 캠프 개최

안산시흥광명센터는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희망무지개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범죄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숲 치유, 수 치유, 다도명상 등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홍성센터
제9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홍성센터는 지난 11월 6일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센터회원, 유관기관, 자조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담근 350여 포기 김치는 범죄피해자 가정 40가구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됐다. 홍성센터는 지역사회의 범죄피해자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매년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진행해 왔다.



논산부여계룡센터
추석 앞두고 범죄피해자 가정에 위로금 전달

논산부여계룡센터는 지난 9월 18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여건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센터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대구서부센터
마음을 보듬는 사랑의 위문품 전달

대구서부센터는 범죄피해로 가족을 잃거나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정 50세대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센터 직원들은 피해 가정을 방문해 쌀, 사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불편사항 등을 살폈다. 센터에서는 2007년 창립 이후 매년 범죄피해 가정을 찾아 나눔의 온정을 전해왔다.



영동옥천센터
전문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영동옥천센터는 지난 9월,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장령산휴양림에서 위원 및 상담자원봉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우심리상담센터 방미나 소장의 특강이 마련됐다. 방 소장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미덕'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곁들인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시 낭송,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북북부센터
행복을 나누는 문화기행 개최

경북북부센터는 지난 11월 10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문화기행을 떠났다. 참석자들은 낙엽 진 아름다운 숲길을 함께 걷고 청정한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몸과 마음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해동 이사장은 "피해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포항센터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가두 캠페인

포항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이 센터의 존재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올해는 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캠페인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포항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상주문경예천센터
심리 치유 프로그램 실시

상주문경예천센터는 지난 11월 7일 '내 마음에 피는 꽃'을 주제로 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자원봉사자들은 집단 심리 치유 상담, 꽃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했다.



김천구미센터
행복박람회 개최

김천구미센터는 김천실내체육관과 금오산 인근 행사장에서 행복박람회를 개최했다. 10월 6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마디 글귀를 남기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의성군위청송센터
1박 2일 행복그리기 캠프 운영

의성군위청송센터는 지난 9월 13일과 14일 1박 2일간 강원 태백 및 경북 영주 일대에서 행복그리기 캠프 '다독다독(多Talk-多Talk)'을 진행했다.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집단 미술 치료, 숲테라피, 한옥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미술작품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만족감을 통한 치유를 경험했다.



경주센터
서라벌 힐링 캠프 개최

경주센터는 지난 9월 7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서라벌 힐링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8개 센터 종사자가 참여했으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관광지과 유적지 탐방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덕울진영양센터
함께 떠나는 마음더하기 힐링 여행

영덕울진영양센터는 지난 10월 27일 강릉, 삼척 일대에서 '함께 떠나는 마음더하기 힐링 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상담분과위원장, 상담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바다와 숲을 거닐고 자연을 느끼며 치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품고 돌아왔다.



부산센터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례회의 개최

부산센터는 지난 10월 12일 살인미수피해자를 위한 회복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센터는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 간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범죄피해자 발생 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서부센터 삼진어묵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서부센터는 지난 10월 23일 관내 유명 기업인 삼진어묵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센터 추석맞이 위문금 전달

울산센터는 추석을 맞아 생계가 어렵고 소외된 범죄피해자 가정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센터 임직원들은 9월 18일부터 3일간 울산지역 26세대와 양산지역 11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111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경남센터 NC 다이노스와 업무협약 체결

경남센터, 창원지방검찰청, NC 다이노스는 지난 6월 5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C 다이노스는 마산 흥경기마다 전광판에 센터 홍보 영상을 송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과 지원제도를 알리고있다.



거창합천합양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

거창합천합양센터는 지난 9월 13일부터 일주일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족 21세대를 방문해 농협상품권, 한의원 진료권, 생활용품 등 5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거창·합천·합양센터는 매년 명절마다 피해자 가정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통영거제고성센터 자조모임 운영

통영거제고성센터는 통영 시내 거주 범죄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상담전문위원 3명과 함께 원예 치료, 뱃킨 공예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즐기며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센터 광주스마일센터와 공감 문화의 날 시행

광주전남센터는 광주스마일센터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감 문화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을 관람하며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를 찾고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목포센터 방화사건 피해자 주거환경개선

목포센터는 지난 10월 22일 전남 무안군 방화사건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센터 임직원은 내연남이 지른 불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침대, 이불 등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또 긴급생계비 및 법정동행,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마산함안의령센터 범죄피해자 초청 문화공연 관람

마산함안의령센터는 지난 11월 2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관람 행사를 열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8명은 힐링 콘서트 '비상' 공연을 관람하며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동부센터 여수 피해자 가정 일손 돕기

전남동부센터는 지난 11월 5일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강도·상해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고 나눔을 실천했다. 여수지부위원들은 고구마를 캐고 선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확의 기쁨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군산익산센터
화재사건 피해자 대상 치유 프로그램 진행

군산익산센터는 지난 10월 26일 군산 화재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화재사건 피해자, 교육전문위원 등 23명의 참가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광양 와인동굴, 섬진강 등을 찾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서산센터
함께해요! 가족여행 프로그램 운영

서산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로의 여행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함께해요!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행계획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 여행을 다녀와 후기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범죄 피해의 경험로부터 회복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밀양창녕센터
자조모임 ‘꽃길로’와 함께 떠난 가을여행

밀양창녕센터는 지난 11월 13일 자조모임 ‘꽃길로’ 멤버들과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국화전시회와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대구로 나들이를 떠났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자조모임 참여로 만남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서로 화합하고 지지하였으며, 봉사활동 등 자아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센터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개최

제주센터는 지난 9월 4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다문화가정국가대표, 피해자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센터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위원 6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범죄피해자 및 가족 11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경제·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96-129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2-534-4901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455-4954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2645-1301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3399-4776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3270-4504

경기·인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20-4678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932-8291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860-4518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329-2580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0266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715-0090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85-1188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656-2828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475-3310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387-0050

강원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244-0335
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641-4163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742-3100
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638-1111
영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375-9119

대전·충청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2-472-0082
홍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31-4915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856-2828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745-2030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60-4377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556-9494(천안) 041-533-6090(아산)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288-0141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856-2526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643-1295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742-3800

대구·경북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3-740-4440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3-573-7400
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854-7600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773-4595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276-8112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430-9091(김천) 054-462-9090(구미)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533-6047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830-4548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730-4679

부산·울산·경남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558-8893
부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781-1144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2-265-9004(울산) 055-366-9011(양산)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86-8286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748-1301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648-6200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356-8272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945-2325
마산·함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42-6688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205-4497

광주·호남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2-231-4752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279-1230
장흥·강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863-3636
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722-2544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537-1301
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276-8804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452-3012
정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534-8295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634-2828

제주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4-756-7004

NEWS 범죄피해자 감사편지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또 한 번의 가을을 맞습니다.

아이의 사고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찾아가게 되었고, 많은 시간 배려와 도움으로 살았네요.
아이는 입원해 있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제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셔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이런 사고를 겪게 되니 정말 화만 나고 사회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감정 컨트롤도 힘들고 아픈 아이에게 온종일 매달려 있느라 생활은 엉망이었지요.
어디에 터놓고 의논하기도 어려운 일인지라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답답함에 연락드리면 언제나 따스하고 인자하신 웃음으로 맞아 주셔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덕분에 우리 아이를 마음 편히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판 때마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힘들어 해주셔서 온전한 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아이도 바르게 잘 키워서 제가 받은 감사함을
다른 분들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엄마가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강력범죄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피해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과
법률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고 웃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강력범죄피해자 구호전화 T. 1577-1295 www.kcvd.or.kr